

영광군, 2023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 최대 50만 원 지급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발생한 수수료를 점포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이다. 공통제출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이고 과세유형별로 전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2년) 총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올해 영

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금년 신규 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 신청 접수일 기준 휴·폐업 가맹점, 관내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마트 또는 경제사업장 및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

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영광사랑카드'로 검색해 서식을 내려받은 뒤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1-350-5452, 5455)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률 기자

나주시, 옛 영산포 제일병원 리모델링

옛 영산포 제일병원이 내년도 상반기 공공형 종합병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추진 중인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12월 중순부터 옛 영산포 제일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

그간 응급실이나 입원 병상이 없어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불편을 겪어온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나주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주민들의 열악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옛 영산포 제일병원을 활용한 공공형 종합병원 설립을 역점 추진해왔다.

이창동에 위치한 옛 영산포 제일병원은 지난 2019년 11월 폐업된 이래 빈 건물로 방치돼왔다.

병원 폐업으로 인해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은 응급상황 시 관내 또는 타지역 종합병원으로 먼 거리를

오고 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이사장 김미순)과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법인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공공형 병원 설립 노력을 지속해왔다.

세화의료재단은 나주시 금천면에 위치한 나주효사랑병원·효사랑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양 기관은 오랜 협의 끝에 지난 10월 부지 계약을 진행했으며 내달

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병원은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응급의학과(응급실)를 갖춘 종합병원급 공공형 의료시설로 재탄생된다.

시는 특히 전남도에 다문화 진료센터 건립을 건의한 결과 도비 5억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 외국국적동포, 이주민 등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다국적 통역사를 갖춘 외국인 진료센터를 원내 신설할 방침이다. /김동철 기자

화순군, 김장 김치 나눔 행사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3일간 화순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희옥) 주관으로 화순농협 미국 처리장에서 '2023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희옥)가 주관하고 13개 읍면 여성단체 회원 300여 명, 기업봉사단 신아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천여 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며 사랑의 온정을 나누었다.

이번 행사에는 구복규 군수와 화순군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접 김장하는 데 동참, 어려운 이웃 사랑 실천에 힘을 보탰다.

박희옥 화순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여성단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많은 봉사와 따뜻한 손길을 이어 나가도록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여성단체와 봉사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김장 김치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마음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장성군이 운영 중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문해교사가 직접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교육한다.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해교실부터 금융, 교통 상식, 범죄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마음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수료식

장성군이 최근 ‘마음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마음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장성군이 3년째 운영 중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문해교사가 직접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교육한다.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해교실부터 금융, 교통 상식,

범죄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다수의 수상 기록으로 주목받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상(최현남), 전남도지사상(김순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강철자, 김남희, 김순애) 수상으로 교육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한 해 동안 한글교실에 참석한 200여 명의 학생

들이 교육을 수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상, 수상자 낭독, 활동 영상 시청 등의 순서도 이어졌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어르신들의 삶이 새겨져 있어 보는 이들로 해금 큰 감동을 느끼게 한다”면서 “내년에도 마음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유광중 기자

담양-(주)태영티에스,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담양군이 최근 담양군과 (주)태영티에스(대표 김춘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태영티에스의 김춘규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태영티에스는 소속 직원과 관계 인구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담양군 측에서는 이러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진행했다.

(주)태영티에스는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로 김춘규 대표는 담양군 금성면 출신 향우로, 지난 9월 담양군 금성중학교 전교생 15명에게 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평소에도 담양군을 위한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날 협약식에서도 김춘규 대표는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

탁했다.

김춘규 대표는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서게 됐다”라며, “나고 자란 고향 담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식이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전해주시 고향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시·군·구)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담례품을 제공한다. /장진성 기자

